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정승희	영문	Seunghee Jeong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Ernst-Abbe-Hochschule Jena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입학 할 때부터 교환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막연히 동경해왔습니다. 바쁘다면 바쁘고 게으르다면 게으른 삶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제 학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늘 교환학생 모집 게시물을 보며 제 얘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하던 중 대학교 3학년 때 토익을 따면서 마냥 막연했던 제 바람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업경영공학을 전공하기에 품질관리, 생산관리, 물류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는데, Smart Factory, Industry 4.0 등으로 유명한 독일은 저희 과에서 공부하기 가장 적합한 환경의 나라였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동경으로 시작된 동기였지만, 교환학생을 신청할 무렵에는 이론이 아닌, 실제로 눈으로 보고 다른 나라와 부딪히며 경험하고 배우는 기회에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상대교 서류준비 - 사실 웬만한 것은 학교에서 작성할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출국 전에는 그 서류들만 잘 작성하시면 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번역기를 돌려도 해석이 되지 않는 단어들(특히 서류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 파견학생 선배분의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학교와는 메일을 통해 교류하기 때문에 항상 메일 확인을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자발급 절차 - 독일은 출국 전에 비자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입국 후 90일 동안 무비자 체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독일 오셔서 시청에서 약속을 미리 잡고 필요한 서류들(비행기 티켓, 학교 입학 허가서, 보험계약서, 기숙사 계약서, Thoska대신 임시로 주는 종이, 여권 등)을 챙겨서 약속에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독일 대학의 멘토가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다시 알려 줄 것이며, 약속 잡는 법, 약속 잡고 비자 만드는 법 등을 같이 도와줄 것입니다.)

항공권 구입 - 보통 4월 중순쯤 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3월에 미리와서 여행을 하다 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중순 쯤으로 티켓을 많이 삽니다. 또한 학기가 시작하기 전 비자발급, 기숙사와 학기비용 지불, 은행 계좌 발급, 보험 신청 등으로 짧게는 일 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왕복으로 사시는 분들은 수강하는 수업에 따라 종강날짜가 다 다릅니다. 보통 8월 전까지는 끝이 날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날짜를 잘 조정해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로 저는 항공권을 같이 파견대학을 갈 동기들과 여행사를 통해 묶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나중에 비행기 티켓 날짜를 바꾸려고 하니 단체로 날짜를 같이 바꿔야 하고 절대 취소도 안 된다고 해서 낭패를 봤었습니다. 부디 각자 항공권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수강신청 같은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과Scientific Instrumentation 페이지에 들어가 이번 학기에 무슨 과목이 개설되는지 확인한 후 신청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전공 변경은 가능하지만 초기에 어떤 전공과목을 신청했냐에 따라 학생별로 그룹이 나뉘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에 따라 다른 수업으로의 변경이 까다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숙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 링크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EAH Jena 근처의 대학으로 Carl-zeiss 기숙사 적극 추천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Ernst-Abbe-Hochschule Jena(EAH Jena)는 크게 3빌딩으로 금오공과대학교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Jena라는 도시는 그 자체로 대학도시로써 EAH Jena와 FAU Jena이렇게 두 개의 대학교가 도시 전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도시를 지나다니며 보이는 큰 건물은 대체적으로 다 대학기구,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대학도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EAH Jena에서 실시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말고도 문화교류의 기회도 많습니다.

학생증으로 Thuringia튀링겐 주 내에서 기차, 버스, 트램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튀링겐 주 내에서의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수영장, 도서관, 쇼핑센터, 대형마트, 공원, 영화관 등 기본적인 시설들은 다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업은 EAH Jena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다른 FSU Jena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FSU Jena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언어수업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듣습니다. 다만 과목당 20유로씩 내셔야 합니다.

학사 수업을 신청하실 때 부디 처음부터 신중하게 골라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과목에 따라 나중에 다른 과목으로 신청변경 하고 싶을 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수업을 신청하실 때 시험신청을 하신다고 해야 정식 수업으로 인정됩니다. 시험을 쳐야 성적표에 기재됩니다.

독일어는 매 학기마다 똑같은 수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에 대해 아무런 기초지식 없이 가신다면 겨울학기(4월에 시작-한국에서는 여름에 신청해서 2학기에 가는 학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름학기는 Basic수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비는 똑같은 기숙사를 신청해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방의 규모, 위치, 룸메이트의 수, 계약기간 등에 따라 좌우됩니다. 보통 200유로 전후인데 200유로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교환학생 기간을 1년으로 잡고 가신다면 처음부터 1년 계약을 추천드립니다. 계약기간이 길수록 기숙사비가 내려갑니다.

생활비는 정말로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행을 많이 갈 것이냐 아니냐, 외식을 자주 할 것이냐 아니냐, 친구들과 많이 놀러가느냐 등. 전반적으로 외식물가가 많이 비싸고 여행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마트물가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 비용절감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비210+보험료90+휴대폰10(유로) 등 매달 고정비용만 40~50은 나갑니다. 나머지 돈은 아끼기 나름입니다.

첫 달은 이것저것 돈이 많이 나갈 것입니다. 학기비 200유로정도(26-30만원), 기숙사 보증금 300유로

(40만원) 등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Mentoring - 독일에 도착하면 멘토가 초기정착을 도와줍니다. 비자발급, 보험 생성, 계좌 생성 등 독일에 와서 해야하는 절차들을 다 도와줍니다.

International Program - 국제팀 프로그램에는 다른 나라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스포츠, 모임을 가지는 EAH Jena에서 주최하는 International Program이 있습니다.

Internatinal Office - 전반적인 문의사항이나 문제가 생기면 Internatinal Office에 가거나 메일을 보내면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Festival -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여 문화, 음식을 알리는 행사가 있어, 참여하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Sport courses - 다양한 Sport 수업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리볼, 수영, 테니스, 펜싱, 줌바, k-pop, 스트리트댄스 등 정말 다양한 종류의 수업들이 있습니다.